

고지도를 이용한 웹기반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방안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Construction of Web-Base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Using Old Maps
:Focusing on Kyung Hee University Hyejung Museum

오일환, 이승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Il-Whan Oh(ohil@khu.ac.kr), Seung-Gwan Lee(leesg@khu.ac.kr)

요약

고지도는 인문학적 자료이면서 과학성을 가진 정보기록의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고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기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지도 자료의 정보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일화된 지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고지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은 자료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분류항목과 정보검색체계의 표준화가 쉽지 않아서 공학적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고지도 자료의 인문학적 정보를 전산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와 융합적 통찰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고지도 자료에 대한 인문학적 정보를 전산화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문학과 공학이 복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고지도 | 정보시스템 | 정보검색 | 웹기반 |

Abstract

Old maps are a cultural heritage of recorded information with humanities materials and scientific value. However, there is no sufficient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b-based information system using old maps to provide the old map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status of the old map information on the website of the main institutions, construct the web-based information systems to provide the unified map information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It is not easy to standardize the data categories and information searching method because of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old map. So, the importance of engineering information management is growing. Therefore, the attempting to computerized humanistic old map information and the integrated approach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This study provide an opportunity to combine the humanities and engineering through the convergence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humanities, and computational engineering.

■ keyword : | Old Ma | Information System | Information Search | Web-Based |

I. 서론

21세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고지도에 대한 공학적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고지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대표적인 소장기관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이나 특별전시회 도록 그리고 관련저서 등의 문헌적 자료를 인쇄물로 출간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고지도는 39개 기관에 1200 여종이 넘는다. 그러나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출간된 자료에 대한 고지도 정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각기 구성되어 있어 정보의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물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고지도는 고도서-사부-지리류-지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에서는 박물관과 도서시스템을 혼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의 대부분 기관에서는 간단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지도를 관리 하고 있다.

이처럼 고지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은 자료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분류항목과 정보검색체계의 표준화가 쉽지 않다. 또한 동해와 독도문제, 그리고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서양고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고지도와 서양고지도의 정보 분류항목이나 체계적인 정보체계에 대한 연구와 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고지도 자료의 인문학적 정보를 전산화하고 체계화하는 공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융합적 통찰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학문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고지도를 이용한 웹기반의 정보체계나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지도 자료의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일화된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로는 첫째, 주요기관의 웹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지도 정보의 항목을 비교하여 정보 검색 시스템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지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 제공 분류항목을 비교하고 공통된 분류항목을 정리한다. 셋째, 새로이 제안하는 공통된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콘텐츠와 시스템을 설계하여 사용자와 관리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기존 검색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정보검색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고지도 분포와 정보검색시스템 현황

1. 국내의 고지도 소장 현황

문화재청에서는 고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물지정 대상의 194점에 대하여 '옛지도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 지정' 사업(2007년)으로 실시하였다.

고지도 조사항목은 1994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지도 목록작업을 토대로 작성한 '주요기관 소장 고지도 목록 및 해제'(2007, 문화재청)에 근거하였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항목을 보면 지도명(한글, 한자), 소장처, 도서번호, 제작자, 제작시기, 제작시기근거, 표제, 형태, 유형, 색채, 판종, 세로, 가로(책/도폭)를 비롯하여 축적, 대상지역(도/군/현), 제작상의 특징, 서문/발문, 인구, 전담, 도로, 산지, 하천, 방위, 울릉도/독도/친지/동해/토문강, 주요내용 및 비교 등 모두 31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4].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조사대상에 대하여 문화재명(지도명), 청구기호, 시기, 수량, 유형, 판본, 규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도명, 소장자(처), 수량, 규격, 재질, 형식, 판종, 제작년대, 내용 및 특징으로 '고지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친 35건의 보물지정 고지도는

‘한국의 옛지도’로 발간되었다[5]. 지역적으로 서울지역의 국가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며 박물관과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의 고지도 현황과 수량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관별 고지도 소장 현황

기관명	수량/종	소재지
규장각	48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31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13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2	서울
고려대학교도서관, 박물관	12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9	성남
영남대학교도서관, 박물관	9	대구
승실대학교 박물관	8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4	서울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4	용인
기타	35	부산, 대구, 제주 등
계	189종	

2. 고지도 정보시스템 현황과 분석

국내의 대표적인 고지도 소장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고지도 정보는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을 통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6].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지도 정보의 주요항목은 아래 [표 2]와 같다.

국내에서 동일한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박물관에서는 유물관리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는 서지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제각기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자료의 검색일지라도 체계적인 분류방법에 의한 데이터의 정리와 입력이 소장기관에 따라 자료의 관리와 정보체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웹 정보에서 용어의 통일이나 정보의 항목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정보에 대한 혼란이나 상당한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요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기관별 제공 고지도 정보항목

기관명	지도 정보 항목
문화재청	종목, 명칭, 분류,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소재지, 시대, 소유자(단체), 관리자(단체),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명, 국적/시대, 소장기관, 재질, 크기, 유물번호
규장각	서명, 현대어서명, 저자, 간행년대, 판본, 사이즈, 본문, 책수, 청구기호
국립중앙도서관	표제/책임표시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분류기호

1) 국립중앙박물관 : 유물표준화관리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관련기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지원과 박물관 전산화에 위한 유물분류표준화방안을 기초로 유물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300여개 이상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다양한 검색기능 (키워드검색, 디렉터리검색, 항목별검색)과 편의기능(축소이미지생성, 환경설정, 자동업데이트, 자료전환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7].

유물관리프로그램에 따르면 고지도는 고도서-사부-지리류에 분류되어 있다. 고도서는 서명, 편저자 등 24개의 서적정리항목이 있고 지리류에는 총지, 방지(도지, 군읍지), 산천, 도로리정, 고적(궁전누각, 능원묘, 향교서원, 사찰), 기행지도와 향약계 등이 있다.

지도에는 천하도, 관방도, 전도, 도별도, 분도, 궁궐관아도, 산도, 천문도, 지도책(세계지도책, 외국지도, 전국지도, 도별지도, 군현지도)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웹의 유물마당-소장유물 검색에서 일반검색과 디렉토리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검색에서 동국대지도를 검색하면 [그림 1]과 같이 유물명, 유물번호, 국적/시대, 지정구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세항목으로 들어가면 한자, 재질, 크기, 소장기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8].



그림 1. 국립중앙박물관 일반검색결과

2)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내에서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웹의 자료검색-원문자료검색에는 고도서, 고문서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의궤와 고지도 등의 항목이 있다. 대동여지도를 검색하면 서지정보와 해제가 도서관리 방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해제에서는 서명, 현대어서명, 청구기호, 책수, 판본, 사이즈, 본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문자료 열람항목의 고지도에는 필사본(회화식), 필사본(방안식), 필사본(기타), 목판본(방안식), 목판본(기타)항목으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고 해당 지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되어 있다.

서명에서 원문보기를 클릭하거나 원문자료 열람에서 고지도 항목의 지도를 클릭하면 원문뷰어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9].



그림 2. 규장각 고지도 원문뷰어보기

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자료, 원문, 디브리리, 국가자료종합목록, 디지털정보자원, 지도자료, 한국고전적종합목록,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원문구축자료 DATA-고지도, 혹은 자료검색-소장자료에서도 고지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결과는 고지도 항목이나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사용이 편리하다. 상세내용 보기에는 서명,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분류기호, 청구기호,

자료이용이 나타나 있다. 원문보기에서 [그림 3]과 같은 고지도 웹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10].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고지도 웹검색서비스

이러한 정보 체계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고지도를 실질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고지도는 고전적류에 포함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목명이나 규격 형태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III. 지도정보검색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웹으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적을 뿐 아니라 자료에 대한 간략한 정보제공으로 이를 보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고지도 정보관리 및 검색시스템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고지도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박물관과 도서관의 관리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박물관은 유물관리프로그램으로 입력하고 도서관은 서지정보 혹은 전적류로 관리하고 입력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지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회화에 속하기도 하는 등 통일성을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도 정보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에 따른 구분이나 제목 그리고 제작기법 등의 일반 형태에 국한되어 있는 지도정보를 관리하는 방안과 사용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

한 검색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 국내·서양고지도 정보관리

근대 국가 성립 이후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간에는 동해와 독도 문제, 그리고 동북지역에 대한 영토문제로 인하여 고지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양고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고지도와 서양고지도의 정보 분류항목이나 체계적인 정보체계에 대한 연구와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 고지도와 서양 고지도의 지도정보 관리 및 검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지도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정보를 바탕으로 국외에서 제작되는 지도의 정보에서 제공되는 항목을 살펴 보고자한다[11].

서양 고지도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고지도 판매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지도 정보는 대부분 번호, 가격, 명칭, 제작자, 제작년도, 채색상태, 컨디션, 사이즈, 간략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으로는 지도명, 제작자, 제작년도, 지역, 사이즈(지도, 종이, 여백, 상하좌우), 종이상태(두께, 강도), 종이칼라, 지도칼라년도상태, 사용칼라, 색채상태, 결합여부, 뒷면, 전체상태, 간략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해 보면 지도에 대한 상태를 중심으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문화재청의 조사항목과 비교해 보면 국내의 정보 제공은 지도에 대한 종이의 상태, 칼라의 사용, 결합 여부 등 지도의 상태에 대한 제공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고지도와 서양고지도 정보항목을 아래와 같은 [표 3]의 항목으로 통일화시켜 사용자가 편리하게 지도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표 3. 국내외고지도 검색분류항목 비교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유물번호	유물번호, 청구기호, 분류기호
명칭	유물명, 서명, 현대어서명, 표제
제작자	발행자, 재발행자
제작년대	국적, 시대, 간행년대, 발행장소
언어	한자, 일어, 서양어
유형, 대상지역	필사, 목판, 동판, 아시아, 전도, 군현
규격사이즈	크기, 지도, 종이, 여백, 상하좌우
전체상태	색채상태, 종이상태, 뒷면, 결합
칼라상태	종이, 지도, 사용칼라, 색채상태
소장자	소재지, 소장처, 관리자
특이사항, 내용	책수, 판본, 서문

2. 고지도 정보검색시스템

위의 정리된 지도 정보 제공 항목을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검색 시스템은 키워드 검색, 디렉토리 검색, 항목 검색, 전문가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시스템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 키워드검색

키워드검색[그림 4]은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문자, 단어를 입력해 검색하는 방법이다. 박물관에서 소장 자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등록하고, 사용자가 등록된 키워드와 일치하거나 단어들의 조합으로 입력하였을 경우 검색하고자 하는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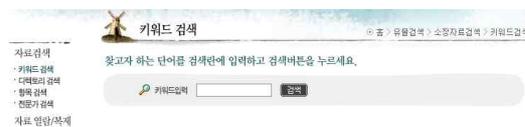


그림 4. 키워드검색

■ 디렉토리검색

디렉토리 검색[그림 5]은 우선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체계를 선택한다. 해당 분류체계에는 크게 다음의 발행장소, 범위, 언어, 우리나라, 제작연대 구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하는 분류체계별로 그 하위의 항목을 선택하면서 검색을 진행한다.



그림 5. 디렉토리검색

각 항목별 상세디렉토리 검색은 [그림 6]과 같이 세부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6]에서 (A)는 발행 장소에 따른 검색 항목이다. 몇몇 지도 제작 국가별로 항목을 나누어 검색하는 방법이다.

(B)는 범위에 따른 검색 항목이다. 이것은 대륙별로 지도를 검색하는 방법이다.

(C)는 언어에 따른 검색 항목이다. 이것은 지도제작 언어에 따라 지도를 검색하는 방법이다.

(D)는 우리나라에 따른 검색 항목이다. 우리나라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검색하는 방법이다.

(E)는 제작연대에 따른 검색 항목이다. 이것은 지도 제작연대를 세기별로 나누어 검색하는 방법이다.



(D) 우리나라



(E) 제작연대

그림 6. 디렉토리검색 상세항목

■ 항목검색

항목검색[그림 7]은 입력된 조건에 대하여 모두 부합되는 유물을 검색한다.



그림 7. 항목검색

■ 전문가 검색

전문가 검색[그림 8]은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해당되는 조건값을 검색하는 것으로 각 항목별로 4개까지의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① 두개이상의 문자에 대하여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검색

: 문자 AND 문자 AND 문자 ... 등과 같이 입력
: 문자 & 문자 & 문자 ... 등과 같이 입력

② 두개이상의 문자에 대하여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검색

: 문자 OR 문자 OR 문자 ... 등과 같이 입력
: 문자 + 문자 + 문자 ... 등과 같이 입력



(A) 발행장소



(B) 범위



(C) 언어

③ 몇 개의 문자는 포함되고 몇 개의 문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검색

: 1문자 NOT 2문자 ... 등과 같이 입력=> 1문자 포함, 2문자는 제외

: 1문자 - 2문자 ... 등과 같이 입력=> 1문자는 포함, 2문자는 제외

④ 여러 개의 특수문자에 대한 조합을 통한 검색

: 1문자 AND 2문자 NOT 3문자 OR 4문자 ... 등과 같이 입력=> 1문자와 2문자는 반드시 포함되고 3문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4문자만이라도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결과



그림 8. 전문가 검색

IV.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지도정보 검색결과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는 분류 정리된 고지도 정보 항목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고지도 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 키워드검색결과

키워드검색[그림 9]은 대부분의 지도정보 제공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방법과 동일하다. 찾고자 하는 지도명칭을 입력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9. 키워드검색결과

■ 디렉토리검색결과

디렉토리검색[그림 10]은 하위 분류항목(발행장소, 범위, 언어, 우리나라, 제작연대)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검색하고자하는 제한된 지도정보 지식을 이용해 편리하게 검색가능하다.



그림 10. 디렉토리검색결과

■ 항목검색결과

항목검색은 [그림 11]의 입력된 조건에 부합되는 유물을 검색해 제공가능하며, 검색된 여러지도 중에서 최종 선택된 지도를 [그림 13]과와 같이 정리된 지도 정보 항목으로 제공한다.



그림 11. 항목검색 조건입력



그림 12. 항목검색결과



그림 13. 최종 지도정보제공항목

■ 전문가검색결과

항목검색과 동일하게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조건에 부합되는 유물을 검색해 제공 가능하다.



그림 14. 전문가검색조건입력



그림 15. 전문가검색결과

V. 결론

국내에서는 박물관과 도서관의 관리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박물관은 유물관리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고 도

서관은 도서관의 서지정보 혹은 전적류로 관리하고 있어서 고지도 정보의 통일성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도 정보 구축 및 검색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과 사용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한 검색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고지도와 서양 고지도의 지도 정보 관리 및 검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 정보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자료 검색에서 키워드, 디렉토리, 항목, 전문가 검색으로 구분하고 지도명, 유물번호, 제작자, 제작년대, 발행장소, 발행자, 언어, 규격, 채색, 특징명칭, 내용 등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재청 그리고 서양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의 웹사이트에 나타난 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다양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고지도 자료의 중요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통일된 체계구축으로 자료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출판물 간행이 편리해 질 수 있다. 셋째, 관리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정보 소통으로 콘텐츠 및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넷째, 고지도 자료에 대한 인문학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는 IT기술과의 융합으로 인문학과 공학이 융복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관련 문화기관에 소장된 고지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비교분석의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김기혁,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301-320,

2007.

[2] 오일환, 이승수, “서양고지도를 활용한 ‘동해’ 전시 콘텐츠구성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7호, pp.208-219, 2010.

[3] 장문현, “문화재GIS 구축을 위한 문유적분포지도 제작 연구-지자체 문화유적정보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GIS Association of Korea, Vol.16, No.3, pp.303-315, 2008.

[4] 문화재청, *주요기관 소장 고지도 목록 및 해제*, 2007.

[5] 문화재청, *한국의 옛지도*, 예맥, 2008.

[6] <http://gis.cha.go.kr>

[7] 국립중앙박물관, *博物館 遺物管理 電算化를 위한 遺物分類標準*, 2004.

[8] <http://www.museum.go.kr>

[9] <http://e-kyujanggak.snu.ac.kr>

[10] <http://www.nl.go.kr>

[11] <http://www.ortellusmaps.com>

[12] <http://oldmaps.khu.ac.kr>

이 승 관(Seung-Gwa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경희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공학사
 - 1999년 2월 : 경희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경희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공학박사
 - 2004년 3월 ~ 200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강의 전임 교수
 - 2006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조교수
- <관심분야> : 인공지능, 로봇에이전트, 최적화, 데이터마이닝, 영상처리

저 자 소 개

오 일 환(Oh-Whan Oh)

정회원



- 1984년 2월 : 경희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 1988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문학석사)
 - 1997년 1월 : 中國 南開大學 대학원(역사학박사)
 - 2002년 ~ 현재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학예실장/후마니타스칼리지 조교수
- <관심분야> : 역사지도학, 한중사회사, 중국박물관학